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루카 12, 20-21)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렘브란트 (1627)

[제1독서] 코헬렛 1,2; 2,21-23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콜로새서 3,1-5.9-11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루카 12,13-21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59] 너희는 가진 것 팔아
- 봉헌성가: [513] 면병과 포도주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 성체성가: [163] 생명의 성체여 [164] 떡과 술의 형상에
- 파견성가: [37] 행복한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가끔씩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돈을 벌며, 또 재산을 모으며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돈을 벌어 놓고 살면 좋은데 그 기준을 딱히 정해 놓을 수가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벌어야지. 좀 더 벌어야지’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삶을 살고 있나 봅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부쩍 상류층의 집이며 고급차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부유하고 호화로운 장면만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인양 착각할 것 같아서 지레 염려가 되기도 하구요. 그 이면의 고통과 어려움들은 가려지고 오색 무지개 빛만 보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가치관에 떨어지기 쉽겠지요. 점차 빈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많은 이들이 가난한 세계를 점점 잊고 마치 재물이 인간 행복의 잣대인양 착각하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자신의 형에게 부모의 유산을 나누어주라는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루카 12,14)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15절) 그리고 이어서 한 부유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크게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외치지요.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19절) 열핏 보기에는 부자는 자기의 재산으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지요. 부자는 그야말로 그 재산이 당연히 자기의 것이라 여기며 그 안에 자신만이 머무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20절) 주님께서서는 비유를 마무리하시며 다음과 같은 교훈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리하다.”(21절)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사실 넉넉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뭇 손에 잡히기만 하면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요. 그러다가 사람이 성숙하면서 자신에게 가져갈 음식을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지요. 성숙한 신앙이라면 자기가 쓰기에 부족한 것을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의 기쁨과 희망을 위해서도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는 삶 속에서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함께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골로 3,9-10)

“The one who stores up treasure for himself...”

Many people are seeking for money. They work hard, earn money, and accumulate wealth. How much money do we need to be satisfied? There is no limit in satisfaction. Many people spend their whole life saying, ‘I want more, I need more money.’

We see many wealthy people on TV. Big and beautiful houses and expensive luxurious cars seem to be the meaning of our life. Sometimes I worry about our young generation because they might think that the money is everything without understanding pains and difficulties that come with the money.

Someone in the crowd said to Jesus, “Teacher, tell my brother to share the inheritance with me.” Jesus rejected the man’s request, “Friend, who appointed me as your judge and arbitrator?” Then he said to the crowd, “Take care to guard against all greed, for though one may be rich, one’s life does not consist of possessions.”

Jesus continued with a parable: “There was a rich man whose land produced a bountiful harvest. He asked himself, ‘I sha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larger ones. There I shall store all my grain and other goods and I shall say to myself, “Now as for you, you have so many good things stored up for many years, rest, eat, drink, be merry!”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of you; and the things you have prepared, to whom will they belong?’ Thus will it be for the one who stores up treasure for himself but is not rich in what matters to God.”

Mind of sharing what one has is the true rich mind. As we get more matured as a faithful, we learn how to share. The Holy Spirit helps us share and sacrifice. We live new life in the unity of Holy Spirit that Christ gave us. We must remember Paul the Apostle’s teaching: “You have taken off the old self with its practices and have put on the new self, which is being renewed, for knowledge, in the image of its creator.”

“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

이신영 (아네스)

예전부터 선교를 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막상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 스케줄과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선교를 가는 열악한 곳에서 일주일간 봉사를 한다는 것이 좀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현실적인 문제부터 모든 게 하나하나 잘 풀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선교는 정말 제 인생에 있어 너무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가기 전엔 막연히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오자 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니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현지에 계시는 봉사자들이 매일 차려주시는 밥상과 아이들의 웃음과 포옹, 그들이 없었으면 저희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다녀오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날씨도 너무 무덥고 아침에 해 뜨자마자 해질 때까지 하루 하루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너무 평온하고 즐거웠습니다. 한 순간 순간 작은 것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하며 지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머나먼 타지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되어 서로에게 힐링이 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해주신 우리 뿌갈파 선교단 여러분, 뿌갈파에 계시는 루카스 신부님,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부모님, 선교단을 후원해 주신 로고스 멤버들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우리의 방문 그 자체를 소중하게 느끼는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

김병국 (다윗)

작년에 이어 올해도 뿌갈파로 선교를 가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점은 ‘가진 게 적은 것이 때로는 커다란 의미를 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이번 2016년 뿌갈파 선교단은 개개인이 아닌 한 단체로 문체 의료봉사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뿌갈파에 있는 본당을 페인트칠도 하였구요. 작년에 비해 많은 인원인 총 33명이 참여했음에도 선교와 봉사는 결코 쉽지 않았고, 무더운 날씨는 저희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현지인들의 해맑은 미소와 행복한 마음까지 저희 선교단을 반겨주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다는 그 자체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느끼는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수 있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랑이 제 안에 머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선교단을 위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또 저희 선교단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돌보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그들의 따뜻한 웃음과 포옹, 사랑이 오래도록 남아... ”

하지혜 (아네스)

뿌갈파를 다녀온 뒤,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뿌갈파 어땀어? 좋았어?” 또는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겐 아직도 그 어느 것도 한마디로 대답하기엔 힘든 질문들입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해가 지고 집에 올 때까지 나름 보람된 하루를 보내면서 뿌듯하기도 했지만 중간 중간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 고개가 떨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 곳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보다는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따뜻한 밥 챙겨주던 분들과 보기에 우리보다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함께해 준 그곳 분들의 모습입니다. 뿌갈파에서의 선교는 일방적으로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져간 약들과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그들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고 새로운 기쁨이었다면 그곳 사람들은 긴 하루 지쳐가는 저희에게 따뜻한 웃음과 포옹으로 격려해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선교단의 모습 또한 감명깊었습니다. 누구도 익숙치 않은 환경 속에서 자신보다 옆 사람이 힘든 게 눈에 먼저 들어오고, 서로 계속 챙겨주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서로에게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머리 속에는 말도 통하지 않는 우리들의 손을 하나씩 붙잡아 주며 한없이 예쁘다고 말해주던 병원에서 만난 할머니의 모습과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는 교실 안에서 한 남학생의 기타 반주에 Bruno Mars 노래를 단체로 불러주던 학생들, 그리고 원숭이마냥 팔, 다리에 매달리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이렇듯 제 기억에 남은 뿌갈파는 따뜻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앞으로 제가 느끼고 온 이 사랑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issionary Journey to Pucallpa

July 8, 2016 - July 15, 2016

Love

It was by God's grace that I was given the amazing opportunity to help the people in need in the beautiful city of Pucallpa, Peru.

However, while I was there I did not realize the impact that the people and the Lord would have on me. The people, despite suffering extreme poverty and hardship, managed to be so joyful with so little. In preparation for this trip, I anticipat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live without internet, air conditioning and basic electricity but from the minute I was there, I realized that these were not necessities and all we really need in order to find joy in our lives is the grace of God and the happiness of those around us. I am incredibly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help those in need and in turn help myself by finding the love and appreciation for the little privileges I have in my life.

Nick Edwards



Happiness....

Pucallpa was a trip like no other. I was taken to a place where the people had so little yet they lived as though they weren't short of anything. I was amazed with the community's hospitality and their kindness towards visitors like us. Whether they were young, old, or sick, the people always greeted me with a smile and a warm welcome.

To be honest, in the beginning I was nervous about the trip. I had put such a high expectation on myself to get as much out of this trip as I possibly could. When I was first introduced to the people and especially the kids, I found it hard for me to be myself and interact with them. It was the kids' courage, not mine, that allowed me to ease into conversation and interaction with them. They knew that I was nervous and that I could barely speak the language but they approached me anyways and talked to me as if I was their friend. Of the many things in Peru I will miss such as the scenery and food, I will miss the kids the most. Their happiness was contagious and for the first time I actually enjoyed the company of little kids. Although our mission's team supported the community a lot in the short week we had with painting, roofing, teaching, and medical assistance, I feel as though my work in Pucallpa, Peru is not yet finished. I still have a strong desire to return and continue serving God in any way I can. I know that another trip to Peru won't come so easy with obstacles such as finances and conflicting schedules in the way. However, I know that with a lot of dedication and prayer, I can make it possible. During the mission, everyday felt like a week, but the whole week felt like a day.

Kevin Kim



Grace....

Grace. It is the one word that can fully describe my experience in the breath-taking city of Pucallpa.

With many obstacles that stood in front of my path such as losing my luggage for the whole week, extremely hot weather, lack of motivational, and scarce source of water, God gave me the ultimate favor of still allowing me to freely serve and offer my heart to the city of Pucallpa despite so many obstacles I stumbled upon. While many things have been lost on this trip (specifically my clothes), I can confidently say that I also gained a lot in terms of experiences but also a big life lesson: a materialistic world isn't the best life to live. We can live without our phones. We can survive without the internet. We don't need those expensive clothes. All we ever need is a heart to love and the joy of God's grace already flowing within us.

James Ahn

ANNOUNCEMENTS

- 1 **Sunday School seek catechists & assistants** for the 2016-2017 school year.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or email at spc15.re.admyc@gmail.com for more information.
- 2 **CYO Summer Camp**
• When : August 4(Thu) at 1pm - August 7(Sun) at 3pm
• Who : Rising 9th - Graduated 12th grade students
• Where : Makemie Woods Campsite (Richmond, VA)
- 3 **CCD Summer Camp**
• When : August 12(Fri) - August 14(Sun)
• Who : Rising 4th - Rising 8th grade students
• Where : Pine Creek Retreat Center (1794 Back Creek Road, Gore, VA 22637)
• Registration Fee : \$100/per participant
- 4 **2016-2017 CCD and CYO Sunday School Registration**
• Registration periods : August 7(Sun), 14, 21, 28 & September 4
• Location : Hasang Lobby
• Time : 9:15am - 11:30am, 12:40pm - 1:30pm
• Registration Fees : 1 child \$80,
2 children /per family \$150 ,
3 or more children /per family \$200



요한회

50대 신자들의 모임인 요한회는 지난 24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에서 7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상반기 활동 마감, 3/4분기 활동 사항 점검 및 노인 아파트 방문, 3개 단체 체육대회, 성지 순례와 피정 등의 일정과 방법을 논의했다. 회원들은 새로 들어온 하상옥(세레자 요한) 회원을 환영하고 8월 정기 모임은 쉬기로 결정했다.

울뜨레야 소식

지난 22일(금) 오후 8시에 친교실에서 회원 48명이 참석하여 7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광노덕(도미니코) 간사의 진행으로 시작기도와 성경 봉독에 이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 묵상 시간을 가졌다. 또한 9월 30일(금)부터 10월 2일(일)까지 2박 3일 동안 실시될 야외 울뜨레야 행사(메디슨 블루 리버 팜)와 본당 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회합 후에는 막국수와 식혜를 먹으며 친교를 나누었다.



레지오 마리에 꾸리아 월례회의 개최



레지오 마리에의 꾸리아 월례회의가 지난 17일(일) 10시 미사 후 하상관에서 개최되었다.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단장 정우진 미카엘)와 은총의 모후 꾸리아(단장 이경구 그레고리오)에 각각 35명, 39명의 브레시디움 간부들이 참석하였으며 주 의제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봉쇄피정(메릴랜드 Mount St. Mary 대학) 참가자 파악이었다.



아울러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두 선교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7월 23일(토)에는 꼬미시움 및 꾸리아 간부들이 봉쇄피정 준비 및 최종 점검 모임을 가졌다. 올해 봉쇄피정에는 본당 레지오 단원 36명을 포함하여 총 102명의 단원이 참가할 예정이며, 피정 지도 신부로 워싱턴 본당의 권오영 프란치스코 신부가 참가한다.

1 2016-2017년도 사목보고회

- 일시: 7월 31일(일) 오후 1시 (점심 식사 12:00)
- 참석 대상: 사도인원, 재정위원, 사도회 임원, 구역 소공동체 봉사자, 단체장(신심 및 활동 단체), 청소년 사도회, 주일학교(CCD,CYO), 교감, 하상문화원 원장, 하상방송 코디네이터, 하상성인학교 교장/교감, 하상한국학교 교감
- 문의: 최재필 총무 (703)589-6580

2 병자영성체

- 일시: 8월 5일(금)
- 신청: 조영인 형제 (703) 264-0050

3 회장단 회의

- 일시: 8월 5일(금) 오후 8시, 회의실

4 구역임원 교육

- 일시: 8월 7일(일) 오전 11:30 (B-1,2)

5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8월 7일(일) 오후 1시 (B-3,4)

6 성모회 임원회

- 일시: 8월 7일(일) 오후 1시 (B-1)

7 2016 - 2017년도 주일학교 등록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을 받고 있으니 학부모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 9월 4일까지
- 등록비: 한 자녀 \$80/ 두 자녀 \$150/ 세 자녀 \$200
- 문의: 윤정보일 교감 (703) 371-3589
- 신청: 하상관 주일학교 교무실 10시미사 전후

8 CCD 여름 캠프 신청

- 신청: 미사 (8시, 10시, 11:40) 후 친교실
- 캠프 일정: 8월 12일(금)~ 8월 14일(일)
- 장소: Pine Creek Retreat Center
- 문의: 서동민 (571) 435-6476

9 2016 - 2017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안내

- 입학 대상: 유치부 - 12학년(K~12th)
- 학사 일정: 2016년 9월 10일 - 2017년 5월 3일
- 등록: 하상관 교무실(8월 4일까지)
- 친교실(8시, 10시 미사 후, 8월 4일-9월 4일까지)
- 우편 접수: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 학비: 등록비 포함, 첫째 자녀: \$490, 둘째 자녀: \$450 셋째 자녀: \$400
- 문의: 육옥영 교감(703)598-5540

10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주일학교에서는 교리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교우분들은 성당 사무실이나 주일학교 교무실로 연락주십시오.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 371-3589/ 성당 사무실(703)968-3010

11 본당 상조회 봉사자 모집

- 본당 상조회에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총무, 법률, 회계)
- 문의: 강세원 바오로 (703) 489-3938

12 셔틀버스 추가 운행 안내

- 셔틀버스를 주일 아침 7시 20분부터 7시 50분까지 추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셔틀버스 스케줄
 - ▶ NGIS (Northrop Grumann Info) 주차장에서 성당으로
 - 오전 7:20 에서 10분 간격으로 7:50 까지
 - 오전 9:20 에서 10분 간격으로 9:50 까지
 - ▶ 성당에서 NGIS 주차장으로
 - 오전 11:15 에서 10분 간격으로 11:45 까지

13 본당 발전 위원회 명단

- 위원장: 김효중(토마스)
- 정책추진위원: 이재문(토마스), 김돈현(미카엘), 하진(세바스찬)
- 위원: 조영훈(안토니오), 유지일(안토니오), 박원급(암브로시오), 이규철(베드로), 김영자(마리아), 박기성(미카엘)

성가정 작은 자매회 소속 정 아가다 수녀님과 이 스텔라 수녀님이 알링턴 교구, 워싱턴 대교구의 승인 절차를 거쳐 성 정바오로 성당에 사목 활동을 돕기위해 파견됩니다.

2016년 페루 선교를 위해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정렬 마리아, 신아네스 모친, 안제올리아, 김테레사나, 박레지나, 김영숙 데레사, 김영옥 실비아, 황영문 줄리아, 변시문, 이일우 베드로, 황일훈, 박양숙, 김연희 세실리아, 조남식 안젤로, 최헬레나, 문인순 마리아, 박 앤 안나, 김펠리시아, 김춘매, 정말가리다, 김생금 레지나, 강대성 요셉, 민일성 베드로, 이준범 프란치스코, 장시자, 유정열, 최평관 데레사, 서영민 린다, 데레사하드웨이, 김정현 크리스티나, 김미애, 이세실리아, 오순명 마리아, 우연숙 마리아, 이근애 마리아, 김올리야나, 주레지나, 이성로, 김정미 엘리사벳, 박준순 모니카, 윤영옥 세실리아, 강수환, 임은경, 김이조, Broken Oliver, 센터빌 2번, 우드브릿지 구역, 웨어팩스 3구역, CLC포도원팀, 성모회

물품 도내이션 강베로니카, 정루시아, 육옥영, 강세원, 황복성, 심성현

이 외에도 페루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7월 31일(일)	연중 제18주일	사목보고회(12:00-15:00, 친교실, 성당)
8월 1일(월)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 학자기념일	아침 미사(6:00, 성당),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2일(화)	연중 제18주간 화요일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성령기도회(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3일(수)	연중 제18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성경학교(20:00),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4일(목)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아침 미사(6:00, 성당),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5일(금)	연중 제18주간 금요일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병자영성체, 회장단 회의
6일(토)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아침 미사(7:00, 성당), 파티마 사도직 쉼모임(15:00-18:00, B-4),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파티마 첫토모 심심(18:15-19:15, 친교실)
7일(일)	연중 제19주일	구역임원교육(11:30, B-1,2), 성모회임원회(13:00, B-1), 청소년 사도회(13:00, B-3,4), CLC 피정(18:00, 친교실)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8월 4일 (목) 오후 9시~11시

- **오늘의 양식:**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일 강론
- **가톨릭 소식:**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글로벌 나눔:** 아시아에 희망을 심다. 한국 외방선교회의 아시아 선교 종합편
- **명불허전:** PBC 명강의 앵글 시리즈. 성심수녀회 최승경 로사리오 수녀가 영성 수련 피정에서 실시한 특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8월 5일 (금) 오후 10시~11시

- **특집 다큐:** 아빠, 우리가 있어요



www.masstimes.org
MASS TIMES FOR TRAVEL

여름 휴가 중 가까운 성당 및 미사 시간 찾기

* *
인터넷에서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7월 24일 (연중 제17주일)

주일헌금	\$ 7,268.20
교무금	\$ 9,700.00
교무금(신용카드)	\$ 3,310.00
특별헌금	\$ 300.00
2차 헌금	\$ 0.00
합계	\$ 20,578.2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례 및 청소 담당

7월 31일	웨어팩스 2-2
8월 7일	웨어팩스 3-1,2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테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복참(프란치스코), 임현석(아비포),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도니), 심용천(요한), 전성호(세례자 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이솔(루시아), 에스더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채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썸머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Susan Interior 커튼, 블라인드 김수산나 703-981-4296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용업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찰탈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하얀나무치과 www.whi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 루시아 703-338-0008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Springfield TOYOTA New / Used Cars 조상준(유스티노) 703-269-1400 Cell. 703-909-0688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찬탈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Kitchen, Deck Sunroom 혜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Golf Lesson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손 678-800-345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